

생명이 존중되고, 평등이 이뤄지며, 평화가 실현되는

희 망 의 정 치 를 위 하 여

박영숙 (민주당 최고위원, 녹색의 전화 대표)

때: 1992년 7월 20(월) 오전 11시

곳: 대구 프린스 호텔

유엔이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정한 이후에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80년대에는 각계층별로 여성운동조직이 창설되고, 민주화운동 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여성운동 내에 새로운 변화가 일게 되었는데 바로 여성의 정치세력화이다. 즉 기존 정치가 여성을 배제하여왔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대표를 각급 의회에 진출 시키는 한편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들을 조직화하여 각 지역의 민주적인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열망을 성취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여성들의 힘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조직의 열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일반 여성들의 정치적인 의식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지난번 지방의회 선거나 총선의 경험을 통해 대다수 지역여성들이 금품과 향응제공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4대 총선에서 여성은 참패하기에 이른 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여성의 정치세력화라는 운동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운동내에서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방안을 연구검토 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조직이 미약할 때 여성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법은 여성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다. 13대 국회에서 가족법개정, 남녀고용평등법개정 또는 타아관계법 제정 등을 이루어낸 것도 여성문제에 의식이 있는 여성의 정당참여를 통해서 이룬 것이다. 더이상 여성들이 선거 때 선전용으로 내놓는 허구적인 공약에 속아서는 안된다. 최근 민자당과 민주당은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자체 시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여성들의 요구를 대폭 수정해 친고제 폐지, 성폭력 개념규정의 확대, 피해자보호및 구제에 대한 조치 등을 담아냈으나, 민자당은 기존 형법상의 반여성적인

불합리한 규정들을 그대로 존치시킨채 형식만 특별법으로 재구성해 놓았다. 민자당안을 보면서 ~~이들~~ 5공말기 87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구체적 내용이 없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종속입법화 한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민정당은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대선에 이용하였다.

따라서 오늘 우리 여성들은 진정으로 민주주의 실현과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우리 정치가 바로서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지역감정을 비롯한 모든 허구적인 편견을 극복하여야 한다.

참된 정치란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 작업이다. 전국민의 극소수에 불과한 재벌과 일부 관료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되는 작금의 정치구조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한다. 금년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이 바라는 민간정부 수립하는 일에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 과제가 된다.